

조건 없는 사랑, 100시간의 강점 사위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의 힘」 (박상미, 북스톤, 2016)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천종호, 우리학교, 2013)

「자존감이라는 독」 (류상평, 추수밭, 2016)

「회복탄력성」 (김주환, 위즈덤하우스, 2019)

「문제아」 (박기범, 창작과비평사, 1999)

인간은 누구나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 기간이 무척 짧습니다. 하지만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들이 그 짧은 시절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어떤 사건이 그 사람의 성격을 형성하기도 하고, 어린 시절 만난 누군가와 관계가 삶의 태도를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의 첫 마음인 ‘동심’이 다양한 환경을 만나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진 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어른이 된 뒤에도 이런 성격이나 태도는 이어지는 인생 속 여러 경험이나 관계 때문에 계속 변해갑니다.

어린 시절 인격적 존재로 대우를 받았던 그 존중의 느낌을 우리 뇌는 무의식 깊은 곳에 기억합니다. 어른이 되어가며, 혹은 어른이 되어서도 힘든 순간을 만날 때마다 그 기억을 불러냅니다. 이로써 끝까지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이도 사랑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존감은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 아이의 행동선택은 본인의 학습을 통한 의지보다 무의식에 좌우된다. 부모, 교사가 아이의 어떤 행동에 반응했던 순간의 말과 느낌은 그대로 아이 마음에 오감의 영상으로 저장된다. 아이가 잘했을 때 들었던 가슴 떨린 사방칭찬은 아이가 또 다른 비슷한 상황에서 아이가 선택할 긍정행동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아이 마음 깊은 곳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억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아이만의 단한 사람」

자존감

자존감은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고 남에게도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주어진 일을 잘 해낼 수 있다고 믿는 마음,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고 남에게도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란, 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다양한 사람 속에서 내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믿음입니다. 주어진 일을 잘 해낼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이란,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다양한 도전에서 어떤 성과를 이루어 낼 것이란 믿음입니다.

자존감은 사회성에 영향을 줍니다. 어울려 살게 돕는 사회복지사로서 자존감의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공감 능력도 뛰어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관계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남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도 높고, 자존감이 낮은 아이는 공감 능력도 함께 낮습니다. 둘레 사람에게 사랑과 존중과 인정을 받지 못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자기애가 없으니 자존감이 낮고, 결국 사회성도 부족하게 됩니다.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고 남에게도 그렇게 인정받은 경험. 이것이 바탕이 되어 자기를 사랑하는 아이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존중하고 이해하려 합니다. 다른 이를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품이 넉넉합니다. 다양한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성이 발달합니다.

또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문제 앞에서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사회를 긍정적으로 여기는 아이는 자존감이 낮은 이보다 살아가며 마주한 어려움을 더욱 잘 이겨냅니다. 긍정적 믿음은 역경조차 성장의 발판으로 삼게 합니다. 어려움이 오히려 동기를 부여합니다. 상황을 유연하게 해석하면서 쉽지가 않아야 하는 힘을 줍니다.

...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고 위치를 매기는 습관에서 벗어나 자존감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거의 모든 심리적 문제는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많은 심리적 문제가 건강하지 못한 자존감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 자존감이 형성되는 과정을 이해한다면 그것을 단순히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시각에서만 분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자존감의 주된 기능은 대인 관계를 맺고 타인과 조화를 이루는 데 있다.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마음이 대인 관계에 영향을 받고, 또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존감 자체가 바로 대인 관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자존감은 대인 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남들이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호의적이며 자신과 가까이 협력하려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장점과 가치를 확신하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아도 자아에 상처를 입지 않는다. 그들은 어떤 일에서 실패하면 그 일만 가지고 생각하며 자기 전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면 자아 전체가 상처를 입고 수치심을 느낀다. 그러므로 자존감의 높고 낮음에 따라 실패의 의미도 다르다. 실패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쓸모없음을 의미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그저 특정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일 뿐이다.

「자존감이라는 독」

탄력성

탄력성은 상황에 따라 알맞게 대처하는 성질입니다. 역경을 딛고 튀어 오르는 힘입니다. 고난이나 역경, 어려움 따위를 잘 참아내는 게 아닙니다. 이를 딛고, 혹은 이를 기회 삼아 솟구쳐 오르는 걸 말합니다. 힘든 경험이 도약의 발판이 됩니다.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의 힘」 저자 박상미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사 50여 명을 인터뷰하며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인생의 역경이 오히려 성공의 밑거름으로 작용했습니다. 어려웠던 순간에 긍정의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고무공을 손가락으로 꼭 누르면 깊이 들어가는 듯했다가, 손가락을 떼면 처음 위치보다 높게 튀어 올라갑니다. 인생이 행복하다 느끼며 사는 사람은 대체로 이런 탄력성이 뛰어났습니다.

탄력성은 마음의 근력입니다. 마음에 근육이 붙어 있다면, 어려움도 잘 이겨냅니다. 마음에 근육이 없으면 별 것 아닌 일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외부 자극을 이겨내는 힘인 ‘탄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탄력성도 뛰어납니다.

자존감의 형성

탄력성의 핵심 요소인 자존감은 좋은 사람의 아낌없는 존중과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끊임없는 지지와 격려가 자존감을 만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와 좋은 경험을 많이 쌓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자존감이 높

게 나타납니다. <EBS 다큐프라임 아이의 사생활 3부 '자존감'>에서는 자존감이 높은 부모의 자녀 또한 자존감이 높게 나오는 대물림 현상을 증명했습니다. 아마도 자존감이 높은 부모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높을 테니, 자녀를 그렇게 대했을 겁니다. 또 그런 인격적 대우를 받은 자녀 역시 그런 마음이 자랐을 겁니다.

자존감은 성장해가며 둘레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전하고 존중하고 믿음을 주는가에 따라서 형성됩니다. 둘레 사람이 자신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을 스스로 바라봅니다.

영유아기를 거치며 굳어진 자존감. 그렇다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평생 부모와 가정환경을 탓하며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김주환 교수의 「회복탄력성」을 보니 어른이 되었어도 노력과 훈련에 의해서 자존감과 탄력성은 스스로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자존감의 회복은 적절한 때 둘레 사람의 진심이 담긴 지지와 격려, 응원과 칭찬으로 가능합니다. 순수한 애정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랑을 전하는 말 한마디가 조금씩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 자존감은 형성 과정에서부터 대인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년기에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부모가 아이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충분한 안정감을 준다면, 아이는 타인에 대해 비교적 안정된 신뢰감을 가지고 대인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 (...) 자존감은 형성될 때부터 대인 관계에서 영향을 받지만, 일단 형성된 뒤에는 반대로 대인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자존감이라는 독」

자존감의 유지 : 좋은 사람과의 관계

마음의 근력인 탄력성. 문제는 이런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고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런 마음의 근육을 타고나기도 합니다. 육체적 강 건함을 타고나지 않았더라도 운동으로 근육을 만들듯, 마음의 근력도 훈련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마음 근력의 핵심요인은 ‘인간관계’에 있습니다. 타인과 소통의 능력을 갖추었을 때 잘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아동 청소년기에 이런 소통 능력을 경험하거나 배웠다면 이후 살아갈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크게 흔들리거나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김주환 교수의 「회복탄력성」에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꺾끗이 제대로 성장해나가는 힘을 발휘한 아이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를 아무런 조건 없이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그 아이의 인생 가운데 한 명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부모님이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가족이나 이웃 그 누구더라도 그 아이를 가까이서 지켜봐 주고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아이가 언제든 기댈 언덕이 되어주었던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있었습니다. 사랑을 주고받고 자란 아이들은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어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을 그 어른으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타인을 공감하고 응원하는 소통의 능력을 지니게 되었으니 힘들어도 어울릴 사람이 있습니다. 흔들리더라도 서로 기대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자 에미 워너 교수는 어떤 요인이 인간을 좌절하게 만드는지를 연구주제로 삼았습니다. 불리한 환경에 놓인 아이들은 분명 여느 사람보다 행복하지 못한 평균 이하의 삶을 살 것이란 전제로 연구를 시작했다

고 합니다. 하지만, 조사가 깊어갈수록 예외인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놓인 201명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72명은 별다른 문제가 없이 바르게 성장했습니다. 예외가 너무 많은 실패로 향하는 연구의 쓸모를 생각했고, 연구 주제를 거꾸로 바꿨습니다. 불리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란 72명의 성장 바탕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 가족 외에도 교사나 동네 이웃과 같은 이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⁵⁾ 이로써 건강한 인간관계를 경험했고,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소통 능력’이란 씨앗을 얻었습니다.

「학생권리와 학교사회복지」에 실린 노혜련 교수의 ‘학교사회복지의 통합적 실천방법’에서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동과 청소년 가운데 약 50%가, 성인이 되어서는 약 70%가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조사를 소개합니다. 그 바탕에는 ‘전환점이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며 가장 힘든 시간에 함께해준 어른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 어른은 대체로 이웃, 친구, 목사, 친척, 형제, 부모, 교사, 사회복지사였습니다.

... 아이를 진심으로 돌봐주는 ‘단 한 명의 어른’ 만 있으면 그 아이는 변한다고 말한다. 아이들에게 부모 못지않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바로 교사다.

「그 아이만의 단 한 사람」

... 자신이 꿈꾸는 분야에서 목표를 이룬 사람들을 만나보니, 공통점을 찾게 됐어요.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곁에서 응원해주면, 자신이 가진 능력의 최대환을 발휘하고 마침내 꿈을 이룬다는 것이었습니다. (...)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곁에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느려도 반드시, 반듯하게 목표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곁에서 응원해주면, 자신이 가

5) America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org) 홈페이지에 실린 ‘Maximizing children’s resilience’ 참고.

진 능력의 최대한을 발휘하고 마침내 꿈을 이루더라고요. 사람의 성격과 인성은 유전자나 환경보다 어떤 사람이 곁에 있고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결정돼요.

... 한 사람의 응원은 어떤 역경도 극복해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이 힘은 타고난 성향보다 '관계를 통해서 기를 수 있어요. 좋은 부모가 없으면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어른이 한 명도 없으면 좋은 벗이 힘을 주는 존재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성인들은 스스로 자신을 훈련시킬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는 존재가 되자고 생각하면 회복탄력성이 커져요. 회복하는 힘이 생기는 거죠.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의 힘」

... 상황과 상관없이 교사 영향력의 원 안에서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위대한 행동, 위대한 관심, 위대한 사랑, 스토리는 분명히 있다. 교육 시스템의 문제, 학부모의 부정적 시선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힘든 아이를 돌봐 주는 단 한 명의 어른만 있으면 그 아이는 변한다. 사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0순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교사인 것이다. 「교실 속 자존감」

... 자존감은 자신이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느끼는 것이다. 자존감에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감이 반영되어 있다. 애착감은 무조건적인 호감과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다. 여기에는 특정한 조건이나 이유가 필요하지 않으며, 그저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다.

... 사랑과 안정감이 충만한 환경에서 적당한 지도와 구속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거의 대부분 낙관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며, 자존감이 높은 인격체로 자란다. 그들은 남에게 어떻게 관심을 쏟아야 하고, 어려움이나 실패를 어떻게 넘어서야 하는지 안다.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고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며 제 의견을 용감하게 내놓지만, 타인의 의견도 존중한다. 또한 그들은 안정감이 충만하고,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 무조건 사랑에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신뢰의 감정은 상대가 아마도 그럴 것이라는 막연한 짐작이 아닌 애착감에서 느낄 수 있다. 그것은 남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적극적인 감정이자, 보호와 지지를 얻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자존감이라는 독」

좋은 어른과 건강한 인간관계는 ‘사랑과 존중’으로 형성됩니다. 둘째 사람과 ‘사랑과 존중’을 주고받을 때 이런 마음의 근력이 붙게 됩니다. 전환점이 된 한 사람은 아이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자신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인격적으로 대해줍니다. 또한, 그 아이의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 전환점이 되는 사람은 아동·청소년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능력과 그의 타고난 탄력성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는 “넌 할 수 있어. 넌 네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 내가 네 곁에서 함께 해줄 거야.”라는 믿음과 도전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한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강점을 발견하고 스스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거울의 역할을 한다.

『학생권리와 학교사회복지』 (노혜련 ‘학교사회복지의 통합적 실천방법’, 한울, 2009)

... 거창한 도움을 주지는 않더라도 곁에서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좋은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아이들은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응원해주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 우리 사회복지사의 몫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좋은 어른과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했음에도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한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픔을 가진 다른 사람에게 믿음과 응원을 보내는 존재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단 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힘을 주었습니다.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고 없고

표 아무개 씨는 경찰입니다. 신 아무개 씨는 범죄자입니다. 두 사람은 나이가 같고 (정확히 한 살 차이), 가정형편이 어려웠으며, 말썽꾸러기 어린 시절을 보낸 모습이 닮았습니다. 잘못과 말썽을 저지를 때마다 강한 체벌과 엄한 질책을 받았던 경험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표 아무개에게는 ‘따뜻한 가슴을 열어 위로와 격려를 해준 이웃 아주머니와 선생님들’이 계셨던 반면, 신 아무개에게는 ‘이웃의 싸늘한 시선과 불만, 교사의 욕설과 무시’가 뒤따랐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 씨는 감옥에서 쓴 자신의 회고록에서 ‘국민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학교에 널 돈도 가져오지 못하는 놈이 뭐 하러 오냐며 심한 욕설을 한 뒤 내 마음에 악마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범죄학에선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사회적 유대’로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주위 사람들과 사회와 긍정적인 연결고리가 강하게 형성될수록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통제력이 강해지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유혹이나 스트레스 등 범죄 유발 요인 앞에 쉽게 무너진다’⁶⁾는 것이 사회적 유대 개념입니다.

그 한 사람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들의 인생을 가른 큰 차이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의 존재였습니다.

신 아무개는 돌레에 믿을 만한 어른이 없었을 뿐 아니라 여러 사람 앞에 불려 나와 꾸중까지 들었습니다. 모욕 받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수치심은 인간을 가장 약하게 만드는 의식입니다. 약해진 인간은 결국 약해집니다. 자존감을 잃은 아이는 비뚤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6) ‘표OO의 죄와벌/ ② 희대의 탈주범 신OO’, 한겨레, 2013.3.22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을 살피는 쉼터 ‘세상을품은아이들’ 대표는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을 가까이에서 만납니다. 아이들의 범죄 원인에는 자신을 지지해주는 기반의 부재와 사회적 낙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무언가를 배우고 능력을 기르고 그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기대 자체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변화를 위해서는 그 길을 알려주고 손잡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줄 ‘단 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없다면 아이의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을 인정하며 끝까지 지지하는 ‘한 사람’입니다.

박기범의 동화책 「문제아」에서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주인공은 자신을 문제아로 보는 선생님과 친구 앞에서는 문제아로 행동합니다. 자신을 따뜻하게 대하는 함께 신문 배달하는 중학생 봉수 형 앞에서는 착하고 순수한 동생으로 행동합니다.

... 나는 문제아다. 선생님이 문제아라니까 나는 문제아다. 처음에는 그 말이 듣기 싫어서 눈에 불이 났다. 지금은 상관없다. 어떤 때는 그 말을 들으니까 더 편하다. 문제아라고 아예 봐주는 것도 많다. 웬만한 일로는 혼나지도 않는다. 그냥 포기한 셈 치니까. 잔소리나 듣다가 만다. 애들도 내 앞에서는 술술 기기만 한다는 걸 안다. 그러니까 내가 점점 더 문제아가 되어 가는 것 같기도 하다.

... 선생님이나 다른 애들이 나한테 붙여 준 문제아라는 딱지는 영영 떼어질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억울하고,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났다. 결국 나는 문제아라는 딱지를 떼어 낼 수 없겠다고 생각한 이상, 점점 그 딱지를 이용하는 쪽으로 변했다. 그게 더 편했다. 나는 문제아니까, 나는 문제아라서 어쩔 수가 없으니까, 나는 문제아라서 선생님도 나를 포기했을 테니까, 나는 잘 혼나지도 않으니까, 나한테는 신경도 안 쓰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였다.

... 그런데 선생님은 처음부터 나를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거였다. 이미 그렇게 취급을 받으니까 나한테는 더 이상 아무런 말이 들려오지 않았다.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단 한번만이라도 나를 문제아로 취급하지 않고 대했다면, 나는 달랐을 거다. 봉수 형처럼 말이다.

... 나는 나를 문제아로 보는 사람한테는 영원히 문제아로만 있게 될 거다. 아무도 그걸 모른다. 내가 왜 문제아가 되었는지, 나를 보통 아이들처럼 대해주면 나도 아주 평범한 보통 애라는 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딱 한 명 있다. 봉수 형이다.

... 제발 그 선생님이 나를 그냥 다른 애들과 똑같은 애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김미선 선생님은 안 그렇다. (...)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소중한 거랍니다. 꽃도, 나무도, 길가에 다니는 강아지도 저마다 오직 하나뿐인 특별한 거죠. 여러분도 한 명, 한 명 이름이 다 다른 것처럼 저마다 너무나도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오직 한 명뿐인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기워요.”

나의 강점을 볼록 렌즈로 봐주고 약점을 오목 렌즈로 봐주는 눈을 가진 이 앞에서는 그의 기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마음이 듭니다. 무엇을 보려고 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이 달리 보입니다. 그 사람도 우리가 보려고 하는 모습대로 행동하려 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물었습니다.⁷⁾ 어려움을 만났을 때 상의할 어른이 있는냐는 질문에 놀랍게도 청소년의 약 70%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어른’에는 부모님도 포함했습니다. 나를 이해해줄 거란 믿음이 생기는 이, 그 한 사람이 없어 힘들어합니다. 그 한 사람이 없어 극단적 선택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살아갈 만합니다.

7) EBS 다큐프라임 ‘가족쇼크’, 2014.11.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의 제제는 아빠의 폭력으로 몸과 마음이 하루도 성한 날이 없습니다. 책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폭력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제제의 모습이 고통스러워 책으로 들어가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폭력적이고 무미건조한 일상을 버텨낼 수 있었던 건,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라임 오렌지 나무와 아낌없는 사랑을 주는 동네 이웃 보르뚜까 아저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살 어린 나이에 폭력에 지친 마음으로 마침내 강물에 뛰어들 결심까지 했던 제제를 외락 안아주며 함께 눈물을 흘려준 보르뚜까 아저씨. 보르뚜까 아저씨가 ‘그 아이만의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제는 보르뚜까 아저씨 덕에 위기를 넘겼습니다.

우리나라 소년범의 70%는 저소득층입니다. 47%는 돌봐줄 어른이 없는 가정입니다.⁸⁾ 소년범을 치유하는 판사란 별명이 있는 천중호 판사는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에서 비행소년들의 재비행을 막는 첫 번째 길은 가족관계 회복이라고 합니다. 가족이 없다면 대안가족이라도 만들어 조건 없는 사랑과 응원을 경험하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 가족과 공동체로 다 이룰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평범한 사람 살이 속 가족을 그림니다. 가족의 강점에서 사례관리는 시작합니다. 가족은 그 자체로 놀라운 힘을 지녔습니다. 가족의 탄력성과 가능성을 믿습니다.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김세진, 구슬궤는실, 2021)

... “비행소년들은 가정에서 버림받은 경우가 많고, 또 학교를 이탈해서 학교에서도 소외되고, 사회에서도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가는 곳마다 아이들은 치이고 살았습니다. (...) 가정이 없는 아이를 사회에 내보내는 것은 재비행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누군가 가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우리

8) tvN_리틀빅히어로_‘천중호 판사’ 편, 2012.8.

사회가 그 아이들을 궁지에 몰린 쥐처럼 몰 것이 아니라, 단 한번이라도 기회를 줬다, 자기 평생에 한번 용서를 받았다는 추억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tvN_리틀빅히어로_천종호 판사 편

... 이곳에 온 소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미세한 눈짓이나 몸짓, 이해할 수 없는 말투나 거슬리는 행동 하나도 무심하게 넘기지 말아야 한다. 건강한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해본 경험이 부족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세심하게 살펴야만 이들이 보내는 마음의 신호를 읽을 수 있다. (...) 외롭고 절망스러울 때 누군가가 당신 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리고 그에게 달려가 마음속 괴로움을 털어놓자. 꼭 가족이 아니어도 좋다. 위기의 순간에 떠오르는 사람, 그가 바로 당신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으니. (...) 잘못을 저질렀어도 아무 조건 없이 두 팔 벌려 품어주는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방황하며 상처 입은 마음, 눈물로 얼룩진 마음을 누군가는 다독여주어야 합니다.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 참혹함 속에서 세상과 사람에 대한 신뢰를 전부 잃은 사람도 그 ‘한 사람’을 만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과 사람 전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다.

「당신이 옳다」 (정혜신, 해냄출판사, 2018)

그림책 「까마귀 소년」에서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땅꼬마’의 다른 모습을 알아본 6학년 담임 이소베 선생님. 이소베 선생님은 ‘땅꼬마’의 자연을 세밀하고 관찰하고 다양한 까마귀의 울음을 흉내 낼 수 있는 능력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 재능을 여러 사람 앞에서 뽐내게 도왔고, 그 자리에서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그 덕에 사람들은 ‘땅꼬마’를 ‘까마둥이’라 불렀습니다. 못난 외모를 비하하던 놀림에서 매력을 담은 응원으로 호칭이 변했습니다. 이소베 선생님 덕에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별에서 인정認定으로 바뀌었습니다.

봉수 형과 이소베 선생님과 보르뚜까 아저씨가 이 그 아이들을 믿어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덕에 아이들은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이 세상에 가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들은 그런 눈을 가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비밀 언덕이 되어주었습니다. 따뜻한 온기를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이 성급하게 자신을 내려놓으려 할 때 가까이서 붙잡아준 ‘그 아이만의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 위한 복지관의 선물 : 이루고 싶은 꿈과 좋은 사람과의 관계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탄력성, 그리고 탄력성의 핵심 요소인 자존감과 성취감. 탄력성과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좋은 사람과 인간관계. 또한, 다양한 과업의 성취 경험. 정리하면,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 좋은 사람들과 잘 연결되어 있으면 (관계)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복지관 사회복지사로서 이를 잘 거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아이의 온갖 문제, 그 문제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돕기 쉬워 보이는 게 없습니다. 아이의 문제를 나열하고 하나씩 제거하는 방식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도 아이의 강점을 극대화하여 문제를 희석 상쇄 무력하게 하는 방법은 해볼 만합니다. 이때, 그 강점이 바로 아이가 혼이 빠지게 몰입할 만한 일,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잘할 수 있는 일 따위입니다. 다른 하나는 믿고 의지할 만한 좋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 모두 이룰 수 있는 일이 ‘단기사회사업’과 같은 활동입니다. 단기사회사업은 사회복지대학생이 방학 중 4~5주간 사회사업 기관에서 수행하는 사

회사업입니다. 사회복지정보원이 주선하는 단기사회사업은 「복지요결」⁹⁾ 방식으로 사업을 단기(4~5주)에 이뤄집니다. 즉,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자연력으로써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사회사업입니다.

아이들 활동도 그와 같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어떤 일이든, 그 일의 계획부터 모집 섭외 진행은 물론, 예산 마련과 평가까지 아이들이 이루게 거둡니다. 이 과정을 사회복지대학생이 거둡니다. 그 대학생의 선발 또한 아이들이 맡아 이룹니다.

여행이나 캠프, 골목 놀이터나 일상생활기술학교 따위의 과업을 이루는 가운데 아이들은 “내가 했다.”, “할 수 있다.” 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다양한 일의 계획과 성취 경험이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며 마을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가운데 다양한 인간관계가 풍성해집니다. 어울리는 친구가 늘어나고 인사하는 어른이 많아집니다. 부모와 관계, 친구와 관계, 마을 어른과 관계. 다양한 관계가 씨줄과 날줄로 얽혀 아이의 탄력성으로 자리합니다.

자존감은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고 남에게도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주어진 일을 잘 해낼 수 있다고 믿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데, 단기사회사업을 거치면 이 두 마음이 깊어집니다. 복지관이 우리 마을 아이들을 돕는 활동으로 이만한 게 없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나는 아이들에게 탄력성의 핵심을 이루는 ‘인격과 관계’를 선물하면 좋겠습니다.

9) 사회사업 원론. 사회복지정보원에서 내려 받기. welfare.or.kr

100시간의 강점 샐리

“빈곤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해도 가정이나 학교, 지역사회 등으로부터 적절한 지지와 관심을 받으면 심리가 안정되고 사회적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기는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간다. 이 짧은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이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조금이라도 심어주어야 한다. 비록 그 추억이 반딧불 같이 작다 해도 방지되어 외롭게 살아왔던 아이들에게는 어두운 길을 비춰주는 아름다운 별빛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이고 남에게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주어진 일을 잘 해낼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인 자존감.

아동 활동을 주제로 단기사회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을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이 복지관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을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활동하는 날이 약 20일, 하루 평균 5시간을 만나면 단기사회사업으로 한 아이와 100시간을 함께합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며 발견한 아이의 강점, 매력, 재능, 희망, 감사, 칭찬을 20일간 꾸준히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매일 이를 엽서나 편지에 적어 전해 주면 좋겠습니다. 포옹인사 하며 이를 전하거나 직접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20일이라는 짧은 시간이라도 너를 믿고 응원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고, 너만의 단 한 사람이 되겠다고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100시간의 강점 샐리!

아래는 어느 복지관 여름 단기 사회사업 ‘골목놀이터’에 참여한 어느 아이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글¹⁰⁾입니다.

10) 당시 담당자 정우랑 선생님과 대학생들이 한 달 활동 과정을 잘 남겼습니다. 이를 부모님

... 골목놀이터에 다녀온 후, 또 다음 골목놀이터를 향하는 아이들의 즐거운 모습과, 모든 활동을 마친 후의 아이들의 아쉬워하는 마음을 느낀 후, 그리고 자꾸 다음 골목놀이터를 벌써부터 기대하고 기다리는 아이들의 모습과 마지막으로 골목놀이터의 활동보고서를 읽은 후의 제 마음에는 여러 죄송스런 마음과 큰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 아이가 평생 살면서 힘들거나 즐거울 때 이 즐거웠던 기억들이 얼마나 큰 추억과 힘이 되어줄까하는 마음에 잠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저 역시 아이를 낳아 키우고 어른이 된 지금에서도 어린 시절 우연한 기회에 가있게 된 시골 한 달 생활에 대한 추억과 기억을 아직까지 꺼내어보면서 웃기도 하고, 추억하기도 하고, 그리워하기도 하며, 때론 그때의 행복했던 기억이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 골목놀이터의 가장 큰 장점으로 느낀 것은 아이들이 주체가 된다는 점입니다. 항상 어떤 놀이에서든 프로그램 행사이던 주로 어른들에 의해 아이들이 따라오는 잘 짜인 틀에 아이들을 끼워 넣는 형식인데 반해, 골목놀이터는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주체가 되어 진행시켜주실 선생님들을 오히려 아이들이 면접관이 되어 질문을 드리고, 선생님들을 선발하고, 또 놀이를 정하는 식의 생각에 의한 행동이 아닌, 어떤 놀이와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을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 부모조차도 자신의 아이들에게 해주기 힘든,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 놀이를 이끌어가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부분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는 아이들이 어떤 활동과 놀이를 했는지를 제가 묻고, 이리저리, 요리저리 물어 봐야 대답을 해주던 아이들이 요 골목놀이터에 다녀온 후로는 아주 말이 많아져서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지나고 보니 자신들이 했던 여러 많은 생각이 실천이 되고 또 실행이 되는 모습이 신기하고, 또 자랑스럽고 뿌듯했던 즐거움과 자신감 등

들께 보여드렸습니다. 과정 기록을 모두 읽은 어느 부모님이 이 글을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전문 읽기 coolwelfare.org > 단기사회사업 게시판 > 220번 글

의 여러 방식의 감정을 아이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표현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 어제는 어떤 걸 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나는 어땠어, 그래서 내일은 이런 걸 해보면 어떻겠냐고 꼭 얘기해야지 (...) 이렇게 놀이나 같이 활동하는 아이들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오늘은 무슨 놀이를 하는데 누구랑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속상했는데 생각해보니 그 친구도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았어. 그런데 내가 순간 화를 냈는데 마음이 불편했어. 그래서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려고 (...) 아이들이 놀이 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며 서로 부대끼고 풀어나가는 관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어주었습니다. 단기간 하루 이들이 아닌 4주에 걸친 프로그램이었기에 특히 더 가능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4주간의 아이들이 집에서 조잘조잘 해주는 얘기들도 열심히 듣고,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셨던 선생님들의 아이들에 대한 여러 칭찬의 말씀들. 그 날 그 날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시며 하루에 꼭 칭찬해줘야 하는 얘기들을 전해 들으면서 왜 그동안 나는 부모로서 아이들의 칭찬보다는 잘못된 것들에 두 눈을 크게 뜬것을 알게 되었고, 아이들이 칭찬을 통해 자만보다는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그래서 고래도 칭찬을 해주면 춤을 추는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고래도 춤을 추게 하는 칭찬을. 앞으로는 저도 열심히 저희 아이들에게 해주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가며 긴 터널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구간을 이겨낼 힘은 평소 느끼는 삶의 행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긍정적 감정보다 부정적 감정을 1.4배 강하게 받아들이고,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을 3배 이상 오래 기억합니다.¹¹⁾ 좋은 사람의 말은 쉽게 잊으며 기억해내지 못하고, 나쁜 사람과 좋지 않은 기억은 오래 간직하며 힘들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11)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의 힘」 저자 박상미 교수의 '세상을 바꾸는 15분' 가운데

우리 아이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더 자주 더 깊이 행복감을 느끼게 긍정적 감정을 1.4배 이상, 좋은 기억을 3배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100시간의 강점 샤워’ 이유입니다.

‘단기사회사업‘골목놀이터’ 대학생 활동가 강경희 학생이 학부모님께 보낸 편지2)

민서 어머니, 골목야영 선생님 강경희입니다^^

저희 오늘 민서 예림이 승우 모여서 골목야영 때 무엇 하면서 놀지 의논하고 직접 바깥에서 놀면서 놀 장소 정해보았습니다.

민서가 동생이 있어서 그런지 야영에 참가할 저학년 친구들을 많이 생각해 주더라고요. 저희가 야영 때 할 놀이 중 하나로 보물찾기를 하기로 했는데 ‘당첨’이 적힌 종이를 찾은 친구들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생각하다 민서가 이번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동생들에게는 연필과 지우개를 선물하는 게 어떻지 말해주었습니다. 어쨌면 재밌게 보물찾기 하고 끝!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선물을 주면 좋을지를 열심히 생각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보다 어린 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고 참 기특했어요~

민서 예림이 승우가 이제 3학년이라 재미없으면 막 뛰어놀고 이리저리 돌아다닐 법도 한데 같이 어떤 놀이할지 정하고, 놀이 규칙 만들고, 주의사항도 같이 정하고 하는 동안 집중하는 모습 보고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하고 싶었던 활동을 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차분하게 회의할 때는 함께 의논하고, 놀 때는 신나게 놀고! 함께 의논하면서 제가 절로 흐뭇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오늘 활동 끝낼 즈음에는 밖으로 나가서 아이들이 제게 ‘몸으로 말해요’ 놀이 가르쳐 주고 골목 평상에서 놀이 같이 하면서 놀았습니다. 아이들이 티 없이 맑은 웃음으로 까르르 하며 놀이하니 제 마음도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아이들한테 다음에 만나

12) 「나가 놀자」, 강민지·강경희, 푸른복지, 2018

서 또 뭐하고 싶냐고 물었더니 놀이 놀이 놀이요! 하더라고요 ㅎㅎ 아이들은 역시 놀이가 참 재밌나봐요. 제게 웃음과 기쁨 주는 아이들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들 오늘 활동 정말 열심히, 재미있게 했으니 집에서도 많이 칭찬 격려해주세요^^

편지 뒤에 이어지는 강경희 학생의 기록.

“어머님들께 매일 이야기 전해드리다 보니 아이들 강점이 눈에 더 잘 들어왔습니다. 아이들과 활동하는 하루하루, 오늘은 어떤 강점 발견했는지 새로운 이야기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빛나는 아이들 덕분입니다.”

우리가 복지관 현장에서 만나는 아이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이런 활동을 계획하여 진행합니다. 그 활동에 아이가 주체가 되어 참여하게 안내합니다. 그 활동으로 성취를 경험하게도 하지만, 그 일을 ‘100시간의 강점 샤워’의 구실로 활용합니다.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 응원의 경험이 아이의 인생을 달라지게 할지 모릅니다.

... 이 아이가 지금 보여주는 것은 1퍼센트도 되지 않음을 믿는다. 아이의 힘, 가능성, 노력으로 만들어 갈 99퍼센트를 진심으로 믿는 것. 그 믿음이 아이의 ‘오뚜기 근육’을 만든다. 그 아이의 단 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99퍼센트를 본다.

...아이의 자존감은 자기 모습에 대한 아이 자신의 인식, 곧 ‘자아상’에 따라 형성된다. 어릴 때는 부모님과 선생님을 거울삼아 자기 모습에 비추어 본다. 아이는 이 모습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평생을 살아갈 동력으로 삼는다. 어린 시절 엄마, 아빠, 선생님이란 거울의 역할이 결정적인 이유다.

...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자존감이다. 실패와 성공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고, 나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 자신을 끝까지 인정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 실패와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자존감인 것이다. 교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아름다운 힘, 자존감을 높여 주는 거울이 되어 주는 것이다.

...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고, 눈을 맞추어 주고, 그 아이만의 색을 찾아주는 선생님, 아이가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먼저 사랑해 주는 선생님이 나의 꿈이다. 바로 '그 아이만의 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 사랑을 받아도 변하지 않는 아이를 나는 보지 못했다.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아이들은 다 기적으로 화답했으니까.

「그 아이만의 단 한 사람」

이 원고를 쓰는 가운데 복지관 사회사업가 조은정 선생님과 산에 다녀왔습니다. 오가며 원고의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선생님이 어린 시절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선생님은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한참을 걸어가야 한 집 나오고, 또 한참을 가야 이웃을 만나는 마을이었습니다. 남루한 옷에 흙투성이 아이였습니다. 어느 여름, 도시 대학생들이 시골 마을로 '농활'을 왔습니다. 아이들과 어울리는 활동도 있었습니다. 스스로 지저분하고 못났다고 생각했던 소심한 그 아이는 근사한 도시 대학생들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때, 어느 대학생이 먼저 다가와 께찮다며 꼬옥 안아주었습니다. 초라했고 소심했기에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는데, 멋있어 보였던 대학생이 자신의 존재를 알아주었던 그 기억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귀하게 대해주는 그 한 번의 포용을 평생 간직하며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나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 '나는 좀 혼나야 해.', '나는 좀 맞아야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이는 더욱 없을 겁니다.

니다. 하지만 상대의 변화를 마음에 두면서 ‘너는 좀 혼나야 해.’, ‘너는 좀 맞아야 해.’ 하고 생각하거나 말한 적은 분명 누구나 한 번은 있을지 모릅니다. 심지어 행동으로 옮기기도 했을 겁니다. 나에게도 말도 안 되는 지적이나 훈계를 다른 사람에게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쉽게 해온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아이들을 만나는 날은 20일에 불과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실수나 실패를 보며 지적하고 이를 고치려 하다가 안아주며 응원하는 시간이 다 흘러가 버립니다. 실수와 실패는 더욱 나은 삶으로 가는 여정에 불과합니다.

샤워는 ‘소나기처럼 뿜어 내리는 물로 몸을 씻는 일’을 뜻합니다. 아이에게 100시간 동안 강점 샤워를 해주는 순간, 그 아이의 겉모습을 씻겨 내려가고 그 속에 감춰진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고 남에게도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주어진 일을 잘 해낼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만이라도 보여줄 겁니다.

이런 마음이 현실이 되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현장에서 만나는 아이들에게 희망의 말로 존중합니다. 포용하며 응원해줍니다. 한 명 한 명 ‘100시간의 강점 샤워’를 시작합니다. 이 작은 일이 그 아이에게는 맑은 영혼의 심폐소생술일지 모릅니다.

“작은 변화를 원하면 하는 행동을 바꾸고 큰 변화를 원하면 보는 관점을 바꿔라.”

스티븐 코비

“세상살이가 힘들고 지쳐도 온전한 내편 하나면 있으면 살아지는 게 인생이야. 내가 니편 해줄 테니 너는 너 하고픈 대로 다 하고 살아라. 이 할망이 모든 거 다해 줄 거여.” 영화 <계춘할망>에서